



**고린도후서2:1-11 넘치는 사랑**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에는 교회가 보이는 것에 많은 타협이 있어서 건물이나 조직을 생각할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4)**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격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눈물과 함께 옵니다.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강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게 합니다. 바울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면에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에 대한 준엄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볼 때 많은 경우 목인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나와 깊은 관계가 아닐때는 쉽게 목인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인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눈물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 해주고 권면해 줌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 주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 라고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넘치게 사랑한다면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눈물과 준엄함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2.용서하는 것입니다.(7)**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 지라도”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를 단수로 기록합니다. 고린도교회를 힘들고 어지럽힌 사람이 한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동이 되어서 교회가 시험에 든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 뿐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근심하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고린도교회가 징계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징계에 대해서 바울은 잘 한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바울은 그를 돌연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고린도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징계를 거부 했다면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처절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서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를 이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누우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누우침이없이 용서는 아무런 위미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그럴 이 글을 바울이 기록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알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사람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에 휘둘렸습니다. 저 한사람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그가 미운겁니다. 왜 떠나지않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동했던 사람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우치고 교회에 남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누우침을 진심으로 받아 들여 주는 구니를 그 상대가 알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